

오바마 시대,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여론의 기대와 우려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 EAI · 매일경제 국제현안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은 세계 주요현안과 인권 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세계여론조사(World Public Opinion survey)를 매년 실시한다. 2009년 조사는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세계 인구의 62%를 포괄하는 20개국 나라 19,9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 \sim 4\%$ 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http://www.eai.or.kr>)과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에서의 조사는 전문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http://www.hrc.co.kr>) 담당했다. 주요 연구주제 및 조사 국가는 다음과 같다.

■ 2009 세계여론조사 주제

(1) 세계리더/ 아시아리더십 평가(6.29 GMT 21:00)

(2) 오바마 시대, 미국 해계모니의 기회와 도전(7.7 GMT 13:00)

- 세계가 본 오바마 시대 미국 : 인권, 국제협력 가치실현에 대한 높은 기대, 전쟁 위협 우려
- 한국인의 눈에 비친 미국 : 2005년 이래 미국에 대한 긍정적 시각 가장 높아, 경계심도 공존

(3) 세계경제위기 진단과 국제금융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4) 민주주의와 국회의 대표성 평가

(5) 각국의 다수여론에 의한 소수여론 표현의 자유 억압 정도 평가

(6) 지구온난화 인식과 각 국 정부 대책 평가

(7) 종교 비판의 자유/ 동성애 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

■ 조사국가

미주	미국 멕시코
유럽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집트 팔레스타인 터키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아시아	대만* 마카오*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한국 홍콩*

* 외교적으로 중국이 대표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WPO는 전체 평균 산정 시 독자적인 국가여론으로 산정하지 않음. 아시아 국가 지도자 평가 시에는 독자적으로 계산함.

■ 한국조사 개요

조사일시	6월 5일
모 집 단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600명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할당 후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무작위표본추출을 전제, 95%신뢰수준 $\pm 4.1\%$
응 답 율	12.9%
조사방법	전화조사(CATI)
조사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

EAI WPO 국제현안연구팀

팀 장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구진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전재성(EAI 아시아안보센터소장, 서울대 교수)
	이곤수(EAI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
	정원칠(EAI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은?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은 미국 매릴랜드대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 Program on International Policy Attitudes 대표: Steven Kull 교수)가 주관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연구조사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여론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매년 1~2회 20여국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결과를 주요 언론 및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 원장: 이숙종)이 연구협력기관으로 매일경제가 한국측 보도기관으로 참여한다.

□ 내용문의

EAI 이곤수 거버넌스 연구팀 팀장(02-2277-1684/011-807-6023/ksyi@eai.or.kr)

EAI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018-280-3230/hwjeong@eai.or.kr)

EAI 정원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017-279-4536/cwc@eai.or.kr)

□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오바마 시대 미국 리더십의 기회와 도전

국제무대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이다. 유엔이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철저히 국익을 위해 경쟁하는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정도의 정당성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가 강대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강대국들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이끌어내고 국가 간 갈등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 강대국들이 지나치게 자국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국제무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경우 이들 자체가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부시 행정부 당시 미국은 9.11 테러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두 번의 전쟁을 이끌 정도로 강력한 힘을 행사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이 내세워 온 인권, 국제협력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함으로써 국제안정과 번영을 이끄는 리더십이 아닌 일방주의적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미부시대통령의 일방주의가 세계에 반미주의를 확산시키고 미국에 등 돌리게 했다는 반성과 비판을 확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행정부에서 잃어버린 국제협력, 인권의 가치를 내세우며 미국 리더십의 복원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하반기 몰아친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미국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세계 화약고 중동문제 및 이슬람세력과의 갈등해소에 바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취임 후 이슬람권 첫 방문지인 터키 앙카라에서는 ‘미국은 이슬람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천명(09/04/06)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이라는 중동문제 이슬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법을 제시한 카이로 연설(09/06/04) 등을 통해 오바마 독트린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시 일방주의와 단절하고 공존과 협력의 변화를 약속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을 바꾸는데 성공할 것인가?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닌 미국적 가치와 미국외교의 매력을 강화시켜 세계 속에서 미국 주도의 리더십을 복원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후 국제사회의 향방을 예측하는 주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EAI와 매일경제가 참여한 월드퍼블릭오피니언 세계여론조사(WPO) 결과를 통해 각국 국민들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바마 시대, 미국의 새로운 미국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존

오바마 국제리더십 신뢰 61%, 미국의 “인권 · 국제협력” 강조하는 오바마 독트린에 긍정적
반면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서는 인식 엇갈려, 현실 외교정책에는 불신 여전
한국인, 오바마 신뢰 88%(4위), 美 리더십 신뢰 68%(3위) vs. 한미관계 불공정 81%(5위)

정원철 · 정한울

세계인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세계 지도자로서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보냈다. 인권존중과 국제 협력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실현에 있어서도 미국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방주의 대신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앞세운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미국의 국제 리더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높다. 오바마 시대의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해 군사적 행동과 위협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아시아연구원(EAI)과 매일경제신문이 미국 메릴랜드대학 국제조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과 함께 세계 20개국 1만19,9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4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다.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 \sim 4\%$ 수준이다.

세계 각국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제적 리더십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매일경제 6월 30일자). 20개국 평균 61%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다. 1년 전 조사에서 20개국 평균 23%만이 부시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것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신뢰는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다. 국제협력과 인권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외교의 기본가치를 미국이 제대로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20개국 평균 과반수를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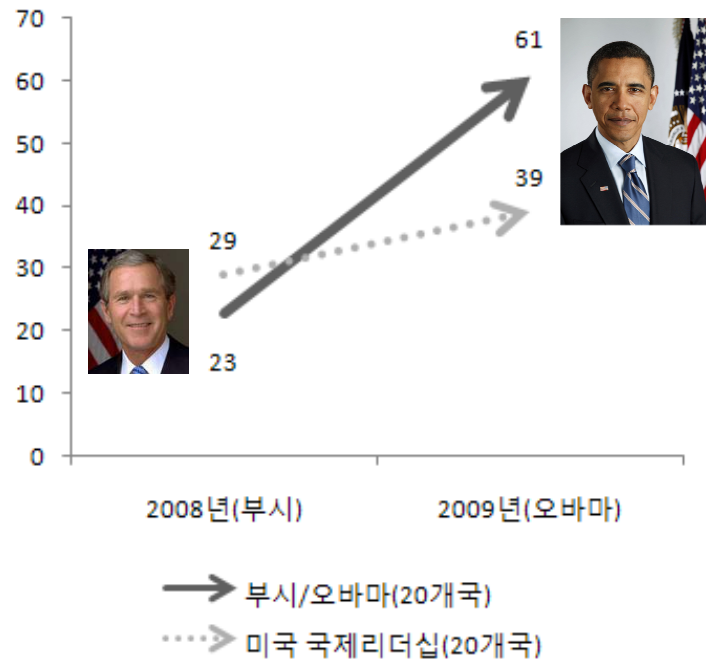
• “미국은 인권 존중” 51% · “국제 협력 자세 갖춰” 59%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도 1년 새 10%p 상승: 2008년 29% → 2009년 39%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 세계 20개국 응답을 평균하면 과반수인 5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부정적인 응답은 38%였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협력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높았다. 협력적이라는 응답비율은 59%였고 협력적이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0%였다.

미국 외교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산되었다는 것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1년 전 부시행정부 시기 조사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0개국 평균 29%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9%로 10%p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영국(58%), 프랑스(52%)와 같은 전통적인 서구 동맹국과 현재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케냐 81%, 나이지리아 70%) 등이 주도했다. 한국은 68%로 케냐, 나이지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나라로 나타났다.

[그림1] 미국 리더십 신뢰 한다 : 부시/오바마 대통령 리더십과 미국의 국제적 역할 평가 (%)¹⁾



- 주1. 미국 여론조사 및 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산정 시 제외함.
 주2. 2008년에는 부시대통령, 2009년 조사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각각 세계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 물어본 결과.
 주3.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의 경우 2008년, 2009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16개국(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터키,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만 보면 2008년에는 20개국 결과와 같은 29%로 같지만, 2009년 조사 결과는 43%로 전체 20개국 결과인 39%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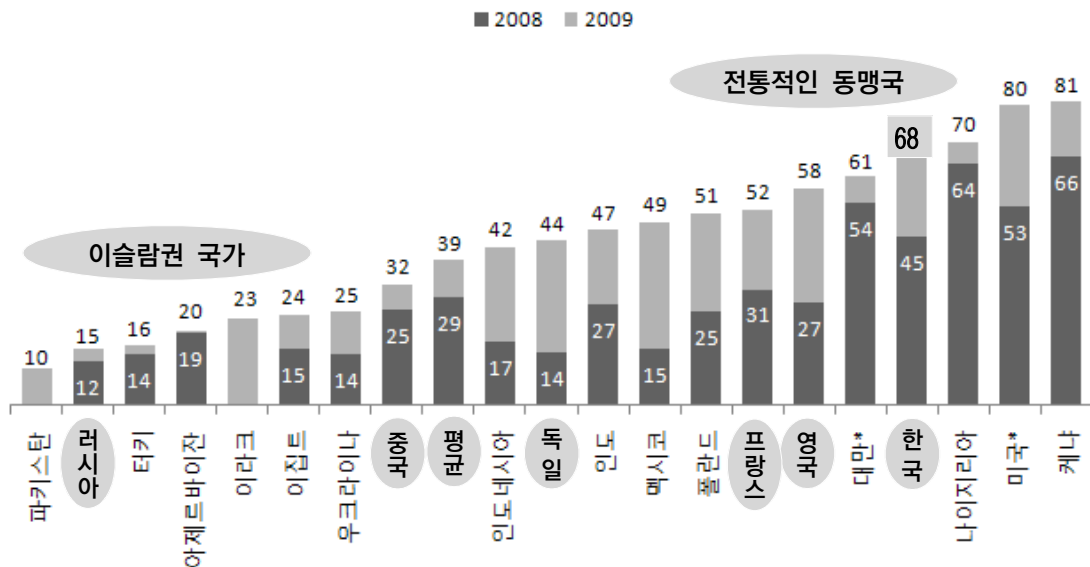
- 미국 국제적 역할에 대한 평가, 긍정 39% vs. 부정 41%, 이슬람-중국-러시아가 부정여론 주도
 미국 이익 결린 영역에서는 “군사 위협” 가능성 높고 77%, “국제규범에는 위선적” 67%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여전히 팽팽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39%, 부정적인 평가는 41%, 모름/무응답이 20%로 유보적인 태도도 적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비판여론은 역시 파키스탄(10%), 터키(16%), 이라크(23%) 등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다. 결국 이슬람과의 공존과 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1) 미국의 국제 리더십 신뢰도 평가는 2008년 하반기 2차 조사에서 이루어졌다. 미주에서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지역에서는 중동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나이지리아가 참여했다. 세계 지도자 신뢰도 평가는 2008년 상반기 1차 조사에서 진행되었다. 미주에서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이, 유럽에서는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스페인, 프랑스가, 중동에서는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이집트가,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가 참여했다.

외교노선이 아직은 이슬람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각종 외교현안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러시아(15%), G2로 불리며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32%)에서 미국에 대한 냉담한 평가가 많았다.

[그림2]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평가 변화(2008년-2009년; %)



주1. 짙은 회색은 2008년 긍정응답비율, 옅은 회색은 2009년 긍정응답비율, 짙은 회색표기 없는 국가 (파키스탄, 이라크)는 2008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주2. 미국 여론 및 대만 여론조사 결과는 전체 평균 산정 시 제외함.

-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활용” 77% · “미국은 국제법 준수 안 해” 67%
-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공정하다” 26%, 불공정하다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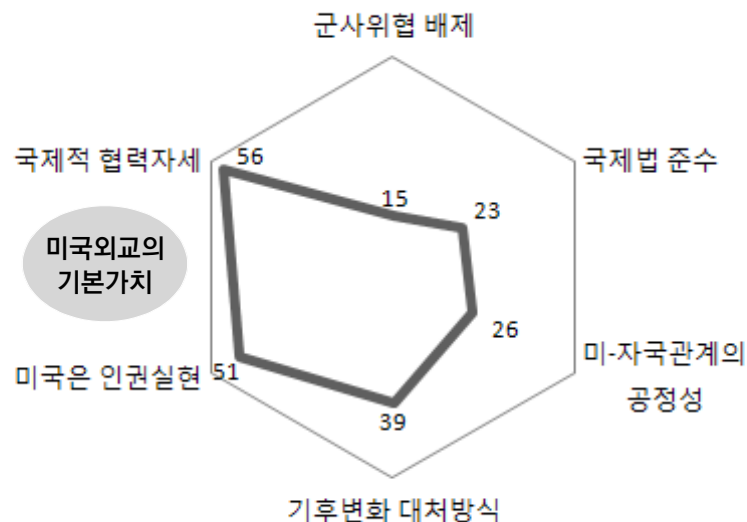
세계인들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보편적 가치 영역에 대한 미국의 평가가 긍정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국익이 걸린 현실 영역에서 미국 외교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정책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사용, 국제규범의 존중, 자기나라와의 외교관계 공정성,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였다. 미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 중 가장 부정적인 영역은 군사력이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이용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77%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사적 위협수단은 배제할 것’이라는 대답은 15%에 머물렀다. 심지어 미국국민들의 71%도 군사적 위협을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스스로 국제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23%만이 동의했다. 다른 나라에는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면서도 미국 스스로는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아 위선적(hypocritical)이라고 답한 경우는 67%였다. 응답자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이 공정

하게 행동하는가라는 물음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들이 그렇다는 응답들을 압도했다. 응답자의 26%만이 공정하다고 답했다. 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41%가 부정적이었고 긍정적인 응답은 39%였다.

조사결과에서 세계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오바마 외교정책이 국내에서는 대체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미국인의 80%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에 신뢰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동 및 아프가니스탄의 정국과 안보 불안을 일거에 해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회복과 세계안보상황 개선에 특별한 개선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미국 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더욱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강화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나듯이 밖에서는 미국은 여전히 일방주의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오바마식 외교정책이 자리잡고 결실을 맺으려면 미국 내 보수층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불안하면 세계가 불안하다. 아직은 미국이 세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림3] 미국외교정책 기본가치 및 현실 외교정책 영역에 대한 미국의 태도 평가 : 긍정적(%)



한국인의 대미인식 특징 : 신뢰와 불신의 공존

이곤수 · 정한울

**한국인 미국 리더십 최근 5년 내 가장 신뢰 높아, 오바마 신뢰 88%(4위), 美 리더십 신뢰 68%(3위)
미국 외교정책 평가는 기대와 우려 모두 높아**

한국인들의 대미인식 역시 다른 나라 국민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혈맹관계에 기초한 긍정적 평가 속에서 미국에 대한 경계감을 보이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리더로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율은 88%로 나타나 한국인 10명중 9명은 오바마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국 중에서 케냐(95%), 영국(92%), 독일(8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부시대통령에 대한 신뢰율이 3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높은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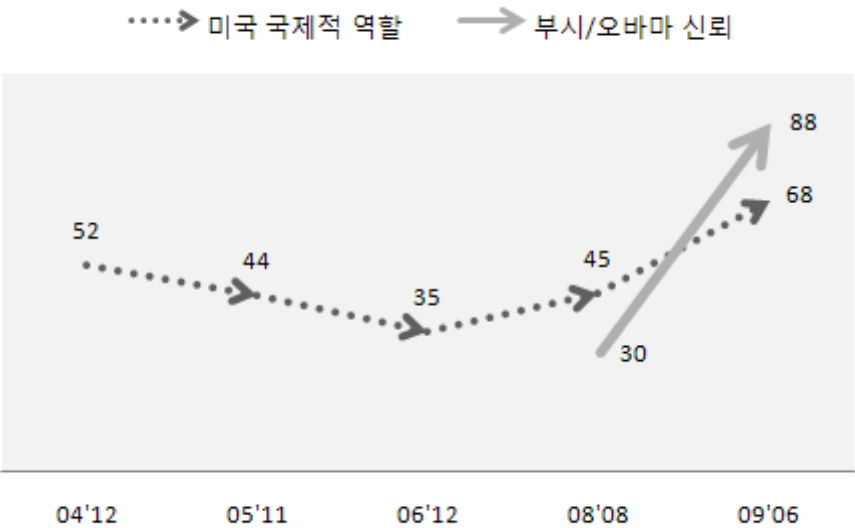
**인권 실현도 평가 82%(1위), 기후변화대처 긍정적 67%(3위). 대외 협력적 자세 63%(7위)
vs. 미 군사위협 활용할 것 92%(1위) 한미관계 불공정 81%(5위), 미 국제법 준수 안해 75%(5위)**

특히 미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82%)라는 인식이 매우 높았다. 이는 조사 국가들 중 가장 좋은 평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국제사회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한국인의 2/3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8%인 반면에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응답 29%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부터 같은 문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래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온 결과이다. 기후 변화 이슈에 대처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2/3 이상이 지지(67%)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긍정적인 평가비율은 각각 케냐,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3위에 위치하는 결과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일반적으로 협력적(63%)이라는 인식도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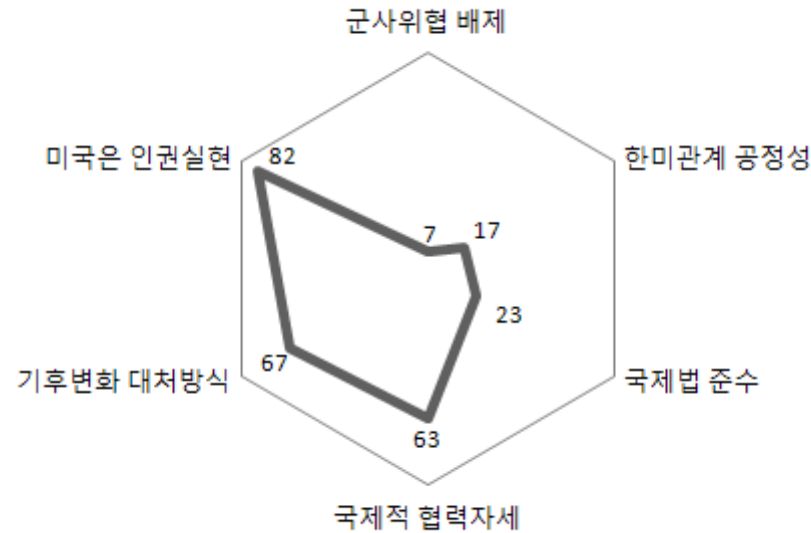
한국인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집착한다는 강한 비판적 인식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10명중 9명(92%)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적 위협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군사적 위협을 배제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인의 81%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공정하게 힘을 남용하고 있다는 경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국제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민 다수(75%)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기는 잘 지키지 않아 위선적이라고 평하고 있다(전체 5위).

[그림1] 미국의 국제적 역할과 부시/오바마 대통령 리더십 평가 : 신뢰한다 (2004-2009)



[그림2] 한국인의 미국 외교 분야별 긍정적 평가 (%)



EAI(동아시아연구원) · 한국리서치 WPO 국제여론조사 한국조사 개요

모집단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600명
표본추출	●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4.1\%$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12.9%
조사기간	● 2009년 6월 5일
조사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 ·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